

# 한국 중년성인의 희망에 관한 주관성

김금숙\*  
혜천대학교 간호학부\*

## Subjectivity of Hope among Korean Middle-Aged Adults

Keum Sook Kim\*

Department of Nursing, Hyecheo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중년성인기 개개인이 느끼는 희망의 주관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설명하여 희망의 구조나 과정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깊은 이해를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개인을 중시하고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관점으로부터 주관적 현상의 차원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총 34개의 Q 표본과 21명의 P 표본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QUANL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3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연구결과 한국 중년성인의 희망에 관한 독특한 3개의 희망유형은 (1) 수동적 소망형(Passive Wish Type), (2) 긍정적 실용주의적 희망형(Positive Pragmatic Hope Type), (3) 능동적 내적가치지향형(Active Internal Value-Oriented Hope Type)이었다. 한국 중년성인의 희망에 관한 주관성은 다른 생애주기에 있는 대상자와는 삶의 의미구조의 역동성, 목표지향성에서 차별화된 유형을 나타내었다. 중년기는 앞으로 삶의 위기가 따르는 즉, 여러 유형의 상실, 삶의 중대한 전환 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기의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희망을 이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 중년성인, 희망, 주관성, 희망유형, Q-방법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over type of hope among korean middle-aged adult and to identify the major threads that structure various patterns of hope experienced by them.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experiencing hope of middle-aged adult experiencing numerous problems and loss at the transition of life. Q-methodology involves five steps in its approach. Collected Q-statements are 112 from 200 adults through 4 open-ended questions. Among them, 34 statements were decided as a Q-sample, The Q-sorting was carried out in 21 middle-aged adults. Three types of subjective experiences of hope emerged as : (1) Passive Wish Type, (2) Positive Pragmatic Hope Type, (3) Active Internal Value-Oriented Hope Type.

**Key Words** : Middle-aged, Hope, Subjectivity, Type of Hope, Q-methodology,

\* 본 논문은 2012년 혜천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수행 되었음

Received 3 September 2013, Revised 23 September 2013

Accepted 20 Octo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Keum Sook Kim(Department of Nursing, Hyecheon College)

Email: ksnuri@h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희망은 인간생명의 근원과 존재의 조건으로서 철학, 종교, 문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에서 활발한 논의가 되어 왔다. 희망은 인간 삶의 활력소로서 현실의 나에 만족하며 미래의 나를 만드는 즉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삶의 원동력이며 평안한 삶에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40세부터 64세 까지에 속하는 중년의 성인들은 생리적, 사회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1]. 중년기는 사람에 따라 삶의 안정기이기도 하지만 신체적인 면에서는 점차적인 쇠퇴현상이 나타나므로 감소되어가는 체력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2]. 또한 가정에서는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책임,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과학과 의료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 중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노년기의 준비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결정지을 수 있는데[3], 중년기는 인생주기의 전환점을 기반으로 한 생물학적, 사회심리적 변화로 인한 위기상황의 경험으로 인해 우울, 무력감 등 여러 중년의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4][5][6][7]. 인생주기의 전환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 중에서 희망의 상실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문제[8][4]이다. 이렇듯 노년기를 앞두고 중년기를 어떻게 잘 보내고 삶의 완성도를 높여 성공적인 노년기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볼 때 중년기의 희망은 매우 중요하다.

희망은 본질적으로 시간이나 질병 경험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성장 발달시기에 따라,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게 경험될 수 있는 주관적인 현상 경험 [9][10][11][12][13]이다. 그러므로 중년성인기에서도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생애주기에서 경험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희망을 경험할 것이라는 가정 또한 가능하며 삶의 전환기에서 수많은 문제와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중년성인기의 희망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희망은 개인의 경험이고 역동적이며 변형적이라는 관점 하에서 중년기 성인이 다양한 패턴으로 희망을 경험할 것 이라는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년기 성인 개개인이 경험하는 희망의 주관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설명하여 희망의 구조나 과정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다양

한 주관성을 탐구하는 이해의 방법론으로서 가설 발견의 논리를 갖는 방법론인[14][15][16][17] Q-방법론적 접근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Q-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 중년기성인의 희망에 관한 주관성의 유형과 그 유형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중년기성인의 희망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 중년성인의 희망에 관한 주관성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에 따른 희망경험 과정을 이해하여 희망의 구조를 밝히고, 그에 따른 한국 중년성인의 희망 고취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 중년성인의 희망에 관한 주관성의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과 구조를 밝히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이다.

### 2.2 Q-모집단 구성 및 Q-표본의 선정

희망에 관한 모집단 진술문 추출을 위해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40~64세 까지의 제주도내 제외된 각 시·도에 거주하는 정상 성인 20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이들에게 희망의 정의, 희망을 구하기 위한 노력 및 방법, 현재의 희망 등에 관한 4개의 문항으로 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여러 희망관련 문헌 및 간호학자의 자문과 여러 번의 검토를 통해 희망에 관한 응답(생각)이라고 생각되는 진술문 112개가 추출되어 Q-표본 선정을 위한 Q-모집단(concourse)로 삼았다.

Q-표본의 선정은 희망에 관한 Q-모집단을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면서 주제별로 공통된 의미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진술문들을 통합하여 범주화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Q-방법론 전문학자, 국문학자, 희망간호 전문학자 1인의 검토 및 자문을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은 19개의 범주화된 진술문 내용 중 의미상의 차이, 희망을 구하는 방법상의 판별성, 그리고 많은 응답이 나온 항목을 중심으

로 최종 34개의 진술문이 선택되었다.

### 2.3 P-표본(sample)의 구성

P-표본의 표집은 소표본 이론에 근거[17]하여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44~60세의 남 11명·여 10명으로 총 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4 Q-분류과정(Q-sorting) 및 자료분석 방법

Q-분류는 대상자에게 Q-표본(진술문카드)를 읽게 한 후 자신의 의견에 따라 가장 찬성하는 진술문에서부터 가장 부정(동의하지 않는)하는 진술문을 선택하여 9점 척도상에 분류하도록 하였으며, 의견이 정상분포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 Q-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강제분포를 하도록 하였다.

Q-분류가 끝난 직후 양극단의 적극찬성(+4, +3)과 적극반대(-4, -3)에 분류한 진술문 하나 하나에 대한 선택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 기록하였다. 또한 면접용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결과 해석 시 참고자료로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코딩의 점수화는 Q-카드의 배열판 분포도에 따라 가장 반대하는 경우(-4)를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0)인 경우 5점, 가장 찬성(+4)인 경우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Table 1>.

자료의 분석은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Q-요인 분석(Q-factor analysis)는 주요인 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의 결정을 위해 Eigen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3에서 7까지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중 최선이라고 판단된 요인(유형)을 최종적으로 선정 후 각각의 유형을 명명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Q-sample card

	Disagree		Neutral			Agree			
Distribution (No. of card)	-4 (2)	-3 (3)	-2 (4)	-1 (5)	0 (6)	+1 (5)	+2 (4)	+3 (3)	+4 (2)

<Table 2> 3 chosen Eigenvalues and percentages of total variance

	Type 1	Type 2	Type 3
Eigenvalue	5.9313	2.2451	1.7166
% of Variance	.2824	.1069	.0817
Cumulative	.2824	.3893	.4710

## 3. 연구결과 및 해석

### 3.1 Q-유형의 형성

Q-요인 분석결과 중년성인들의 희망에 관한 주관성은 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유형은 전체변량의 47%를 설명하고 있다<Table 2>. 각 유형에 속한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과 인자가중치는 <Table 3>에, 항목별 표준점수는 <Table 4>에, 각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Table 5>에 나타나 있다.

### 3.2 유형별 해석

대상자들이 희망을 구하는 것과 관련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적극적 찬성과 반대를 보인 진술문을 제외 한 각 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높게 보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개별 진술항목에 대한 특정 유형의 z값, 개별 진술항목에 대한 나머지 유형의 평균표준점수상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Table 5>, 또 양극단에 놓인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기록한 면담내용, 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 (1) 유형 1 : 수동적 소망형(Passive Wish Type)

유형 1에 속한 대상자는 모두 6명이었으며, 유형 1이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z=1.91)로 4명이 기술하였으며, 「오늘과는 다른 내일이 있다는 것을 희망이라고 생각한다」(z=1.47) 4명이 기술하였으며, 「돈이 희망이다」(z=1.33),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한다」(z=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는 것을 희망이라

<Table 3> Types, Factor weigh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P-samples

Type	Subject's No	Age	Sex	Factor weight score	*Ed	**R	***M	****ES	whole life satisfaction (10 point)	current life satisfaction (10 point)
1	02	53	M	1.9045	U	N	M	VP	5.7	2.1
	03	52	M	1.3033	H	N	M	P	5.2	5.3
	04	54	F	1.5371	H	P	Se	M	1.9	3.6
	09	46	M	1.0648	U	B	M	VP	5.0	2.5
	10	46	F	.9535	U	B	S	M	6.7	4.6
	19	57	M	1.0070	U	P	M	W	8.0	8.0
2	05	50	F	2.2337	U	N	M	M	7.6	6.7
	06	57	M	.6600	E	B	D	VP	2.4	1.7
	07	56	F	.7613	H	N	M	P	3.9	7.1
	08	46	F	1.6797	H	N	M	M	6.0	6.5
	13	50	F	.3674	H	B	M	M	5.0	5.0
	14	50	M	.4242	U	B	M	P	5.0	6.0
	16	44	F	.8304	H	C	M	M	9.0	9.0
	17	47	F	1.0119	U	B	M	P	8.0	8.0
20	53	M	.3189	U	N	M	M	8.0	9.0	
3	01	56	F	.5676	M	N	M	M	9.6	4.6
	11	48	M	1.6061	H	N	S	M	8.0	8.0
	12	56	M	1.1179	U	B	M	M	8.0	8.0
	15	53	M	.5468	U	B	M	M	8.0	8.0
	18	58	F	.9061	U	B	M	W	8.0	8.0
	21	56	M	.8023	U	N	M	M	4.2	4.5

\*Ed : Education U; university, H; high school, M; middle school, E; elementary  
 \*\*R : Religion P; Protestant C; Catholic, B; Buddhism, N; none  
 \*\*\*M : Marriage M; married, Se; separated, S; single, D; divorce  
 \*\*\*\*ES : Economic Status VP; very poor, P; poor, M; moderate, W; wealthy

고 생각한다」(z=-1.32),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볼 때 희망을 느낀다」(z=-1.25), 「희망을 구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한다」(z=-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 1에서 요인 가중치가 가장 높았던 P02(요인 가중치 1.9045)는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것에 대해 “지금보다 예전이 모든 면에서 행복했었다”, P 04(요인 가중치 1.5371)는 “이루어 질 수 없는 희망이지만 시간을 다시 돌리고 싶다”, P 09(요인 가중치 1.0648)는 “젊었을 때 너무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고 진술하여 삶의 후회가 보인다. 돈이 희망이다에 대해서는 P 04는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척도이다”, P 09는 “돈이 권력이고 희망이다”, P10는 “돈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인생이 희망이 생긴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P 09는 “자신에 욕심을 내야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다”, P 10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므로 발전이나 희망이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내 모습이다”라고 하였다. 또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볼 때 희망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 P 02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만큼 내 자신이 여유롭지 않다”, P 10은 “자기 위안적인 것으로 희망을 느끼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므로써 이들은 남이 처한 상황과 비교해 볼 여유나, 또 상대적 비교를 통한 희망의 의미부여에는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듯하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 등을 시도하려하거나, 희망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행동 등이 부족하며, 또한 삶의 목적성 또는 유의미성에서 불

〈Table 4〉 Q-Samples(ITEM DESCRIPTIONS) and Z-scores according to types

Item Descriptions	Z-score		
	1 (N=6)	2 (N=9)	3 (N=6)
1. I think that hope is to endeavor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life.	1.3	-.4	1.0
2. I think that hope is making present.	-.5	-.1	-.3
3. I think that hope is to realize the purpose of life is tool.	.2	-1.2	.9
4. I feel hope when I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in the step by step process of life.	.9	.7	.5
5. I think that hope is the power of wisdom to solve current problems.	-.5	-.2	.5
6. I feel hope when I found out that the world is fair.	-.4	.1	-2.0
7. I feel hope when I recollect my past times.	.1	.9	-.4
8. I feel hope when I accept myself as I am.	-1.3	.1	-1.4
9. I feel hope when I empty my desires and thoughts.	-1.2	-.8	-.8
10. I feel hope when I win the struggle with myself.	-.4	-.5	1.3
11. I feel hope when I have true communions with nature.	-.1	.4	-.8
12. I think to hope that there is reason to live.	.6	.1	.3
13. I think to hope that today and tomorrow are the other.	1.5	.7	1.0
14. I think hope when I am able to help other people.	.1	-.3	.5
15. I feel hope when I do take the right attitude towards life.	-.1	1.0	.9
16. I strive to get the self-esteem to find hope.	.6	-1.4	1.2
17. I think that hope is empty my mind and love for others to find the value.	-.3	.3	.1
18. I think that hope is to not rely on others to will live their own life	.3	-.3	.9
19. I have a faith in praer to find hope.	-1.2	-1.2	-.7
20. I find hope when I try to find pleasure in life.	-1.2	.4	.1
21. I have try to talk with a variety of people to find hope.	-1.1	-.7	-.2
22. I feel hope when the family will believe.	.9	1.1	1.4
23. I feel hope when I think there are people who love to be by my side.	.6	1.3	.7
24. I think that hope is child's health and success.	1.2	1.1	1.0
25. I think the money is hope.	1.3	-1.3	-1.6
26. I feel hope for enough time because I think still young.	-.7	.8	-.9
27. I find hope while objectify the size of despair.	-1.1	-.8	-1.6
28. I find hope while I meet the day-to-day and try to live.	-.1	1.9	1.3
29. I feel hope when I compare myself with other people in a more difficult environment.	-1.3	.3	-1.3
30. I feel hope when I think that the now happy life is extended to the future.	.4	.3	.1
31. I hope that my life is healthy living and dying well	2.1	2.0	.6
32. Just wanted to try to do is hope.	-.3	.2	.2
33. If I continue to keep this life, I hope to die.	2.1	-2.5	-1.8
34. If I can turn back, I hope to go back into the past.	1.9	-1.8	-.9

때 수동적인 특징을 보였다. 내면의 여유가 없으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삶의 후회들을 많이 표현하였다. 이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며, 그러므로 남이 처한 상황과 비교해 볼 여유나 또 상대적 비교를 통한 자신의 희망적인 삶의 의미부여에는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듯하다. 또한 다른 유형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리 돈의 가치에 희망을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이 유형의 사람들은 중년기 자신의 삶의 희망을 구하기 위한 역동적인 능동성이나 지혜를 구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들이 의지하려는 돈이나 가족 등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희망의 어떠한 유의미성의 존재가 비어있는 수동적인 소망의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 1을 수동적 소망형으로 명명하였다.

## (2) 유형 2 : 긍정적 실용주의적 희망형(Positive Pragmatic Hope Type)

유형 2에 속한 대상자는 모두 9명이었으며, 유형 2에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하루하루를 만족

<Table 5> Type(1~3) items and Z-scores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Type	Item No.	Q-statement	z-score	Average	Difference
Type 1	34	If I can turn back, I hope to go back into the past.	1.911	-1.358	3.269
	25	I think the money is hope.	1.327	-1.455	2.783
	1	I think that hope is to endeavor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life.	1.300	.299	1.001
	31	I hope that my life is healthy living and dying well	2.105	1.306	.799
	5	I think that hope is the power of wisdom to solve current problems.	-.514	.170	-.684
	15	I feel hope when I do take the right attitude towards life.	-.147	.947	-1.094
	20	I find hope when I try to find pleasure in life.	-1.175	.224	-1.399
Type 2	28	I find hope while I meet the day-to-day and try to live.	-.054	1.597	-1.651
	26	I feel hope for enough time because I think still young.	.784	-.792	1.576
	29	I feel hope when I compare myself with other people in a more difficult environment.	.277	-1.264	1.541
	8	I feel hope when I accept myself as I am.	.053	-1.343	1.396
	6	I feel hope when I found out that the world is fair.	.069	-1.232	1.301
	28	I find hope while I meet the day-to-day and try to live.	1.884	.628	1.256
	10	I feel hope when I win the struggle with myself.	-.530	.467	-.997
	1	I think that hope is to endeavor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life.	-.361	1.130	-1.491
	3	I think that hope is to realize the purpose of life is tool.	-1.171	.562	-1.733
	16	I strive to get the self-esteem to find hope.	-1.424	.871	-2.296
Type 3	34	If I can turn back, I hope to go back into the past.	-1.801	.498	-2.299
	10	I feel hope when I win the struggle with myself.	1.333	-.464	1.797
	16	I strive to get the self-esteem to find hope.	1.162	-.422	1.584
	3	I think that hope is to realize the purpose of life is tool.	.939	-.493	1.432
	18	I think that hope is to not rely on others to will live their own life	.937	-.002	.939
	5	I think that hope is the power of wisdom to solve current problems.	.549	-.361	.911
	26	I feel hope for enough time because I think still young.	-.875	.037	-.912
	11	I feel hope when I have true communions with nature.	-.810	.153	-.962
	31	I hope that my life is healthy living and dying well	.611	2.052	-1.441
	25	I think the money is hope.	-1.620	.018	-1.638
6	I feel hope when I found out that the world is fair.	-2.041	-.176	-1.865	

하면서 생활하도록 노력하므로써 희망을 구한다」(z=1.88)로 5명이 기술하였으며, 「내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할 때 희망을 느낀다」(z=1.28) 4명이 기술하였으며, 「올바른 삶의 태도를 취하고 행할 때 희망을 느낀다」(z=.98) 3명이 기술하였으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때 희망을 느낀다」(z=.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희망이 있다」(z=-1.80) 6명이 답하였으며, 「희망을 구하기 위해 자존감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한다」(z=-1.42) 3명이 답하였으며, 「돈이 희망이라고 생각한다」(z=-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 2에서 요인 가중치가 가장 높았던 P 05(요인 가

중치 2.2337)는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생활하도록 노력하므로써 희망을 구한다에 대해 “욕심을 버리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삶이 희망적이 된다”, P 08(요인가중치 1.6797)는 “그러면 내자신도 만족하고 행복해지며, 내자식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니 희망적이지 않은가”라고 답하였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느끼는 것에 대해 P 05는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은 내 삶을 든든하게 하고 이것이 희망이다” P 14는 “사랑하는 가족에서 행복과 희망을 느낀다”라고 답하였다. 올바른 삶의 태도를 취하고 행할 때 희망을 느낀다에 대해서는 P 07은 “올바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희망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는가”라고 답하였다. 또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때 희망을 느낀다에

대해 P 06은 “과거에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며 살아왔고, 이만큼 버티고 살아온 것이 감사하고 내자신 대견스럽고 앞으로 희망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희망에 대해 P 08은 “현재가 불투명하고 불안하다고 과거를 그리워 할 수는 없다. 현재도 지나고 나면 좋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P 14는 “현재도 적극적으로 살고 있고, 지금 현재의 삶을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였다. 또 희망을 구하기 위해 자존감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한다에 대해 P 17은 “삶을 희망적으로 하기위해 절박할 때는 자존심도 사치일 수 있으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므로써 이들은 삶이 힘들 때 내면의 상처에 절망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삶의 무게에 가치를 두고 있다. 또 돈이 희망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P 08은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며, 물질만능주의를 싫어한다”라고 하였으며, P 16은 “돈보다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 곧 희망이다”라고 하였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중년의 삶에서 시간적 여유감이 있으며, 현재의 평상적인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희망을 구함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다. 희망을 구하기 위해 너무 혹독하게 자신을 다루거나,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인생의 후회감을 적었으며, 그러므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하였다. 이들은 돈이나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가족, 자식, 주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에서 희망을 구하고 희망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유형 2는 처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수동적인 기다림도 아니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의 비현실적인 것 보다는, 현실적 여건의 한도내에서 삶의 가치와 희망을 경험하는 긍정적 실용주의적 희망형으로 명명하였다.

### (3) 유형 3 : 능동적 내적가치지향형(Active Internal Value-Oriented Hope Type)

유형 3에 속한 대상자는 모두 6명이었으며, 유형 3에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자기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희망이라고 생각한다」(z=1.33)로 1명이 기술하였으나 이는 다른 유형에서 진술한 값과 매

우 차이가 큰 진술문이었으며,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생활하도록 노력하므로써 희망을 구한다」(z=1.31) 3명이 기술하였으며, 「희망을 구하기 위해 자존감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한다」(z= 1.16)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세상이 공평하다는 것을 깨우쳤을 때 희망을 느낀다」(z=-2.04) 4명이 답하였으며, 「돈이 희망이라고 생각한다」(z=-1.62) 3명이 답하였으며, 「절망의 크기를 객관화시키면서 희망을 구한다」(z=-1.59) 3명이 답하였으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생각한다」(z=-1.37) 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 3에서 P 18(요인 가중치 .9061)은 자기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희망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희망이 이루어져도 사상누각이 된다”라고 답하였으며,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생활하도록 노력하므로써 희망을 구한다에 대해서는 P 11(요인 가중치 1.6061)은 “희망은 원대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에 만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였으며, P 12(요인 가중치 1.1179)는 “하루하루를 만족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의미고 이것이 희망적인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답하였다. 희망을 구하기 위해 자존감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한다에 대해 P 18은 “자존감이란 내가 존재함을 말하는 것이며, 내가 자존감이 높아야 희망을 갖을 수도 있는거지”라고 하였으며, P 15는 “자존감은 자기발전을 위해 필수이고, 그것이 곧 희망이지”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세상이 공평하다는 것을 깨우쳤을 때 희망을 느낀다에 대해 P 11은 “세상은 남들이 말하기 공평하다고 하지만 불공평하다”, P 12는 “각자의 생각과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공평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또 돈이 희망이다에 대해 P 12는 “돈은 나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돈과 희망을 직접 연결하진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절망의 크기를 객관화시키면서 희망을 구한다에 대해 P 18은 “절망의 크기로 희망의 크기를 논한다면 인생을 살면서 과연 희망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논리론 인생을 희망적으로 살 수 없지”라고 하였으며, P 01은 “절망과 희망의 상대적 비교는 바보같은 것이지”라고 답하였다.

이처럼 이 유형의 사람들은 희망을 느끼고 구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희망감을 느끼며, 이들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

으나 희망을 남들과의 비교 등 상대적인 것에서보다 자신의 본질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또 이들에게 희망은 인생의 삶의 목적실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삶의 에너지 또는 지향성면에서 타인에 의존적이지 아니며, 미래의 재정을 위한 자기조절, 자존감을 갖기 위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노력하는 매우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유형 3은 능동적 내적가치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 4. 논의

각 유형에서 나타난 특성들에 대해 희망관련 문헌 및 여러 학자들의 희망에 관한 다른 연구결과에 조명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매우 높은 긍정과 부정을 보인 공통진술문은 <Table 6>과 같다. 중년기는 정신건강에 있어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의 중요성이 시사하는 바가 크며[4], 또 중년기 우울과 관련하여 가정 내 역할갈등 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거론[18]하였으며, 또 우리나라 여성노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식의 성공이나 관심속에서 찾으려는 특성이 있으며, hybrid model을 이용한 희망의 개념분석연구에서도[19]정서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 모두 희망의 속성의 내용이 가족과 관련하여 일어났다. 가족의 지지 또 자식의 건강과 성공 등은 자신의 가치 기준과 삶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 때에만 성취할 수 있다고 볼 때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실존적 본질적 관계속에서 삶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며 희망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6> Consensus Item and Average Z-scores

Item No.	Consensus Items Description	Average z-score
22	I feel hope when the family will believe.	1.14
24	I think that hope is child's health and success.	1.10
13	I think to hope that today and tomorrow are the other.	1.04
19	I have a faith in praer to find hope.	-1.04
27	I find hope while objectify the size of despair.	-1.16
33	If I continue to keep this life, I hope to die.	-2.13

또 모든 유형에서 강한 부정을 나타낸 「계속 이런 삶이 지속된다면 죽는 것이 희망이다」는 현재 삶의 환경에서 상황이 많이 나쁜 유형에서도 죽고 싶은 마음은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희망에 관한 주관성연구[12]에서 인생의 중반기에서 남아있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죽음의 희망과는 매우 다른 결과이다. 즉 중년기는 현재의 삶의 환경이 비판적이어도 삶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노년기를 맞이할 이해의 가능성을 위한 지향성을 추구하면서 오늘날과는 다른 내일이 있다는 것을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희망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진다」는 진술문에서도 모든 유형이 강한 부정을 나타냈는데, 이는 대상자 21명 중 12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종교도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다양했다. 즉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희망을 구함에 있어 신앙적 믿음은 이들에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대상자는 암이나 만성질환 등 질병을 가진 대상자는 아니지만 인터뷰에서도 종교적 믿음과 희망을 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답하여 자신의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않는다고 답하여, 중년기의 종교적 믿음은 만성질환자 또는 암환자, 그리고 노년기의 종교적 믿음에서의 희망을 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제 1유형은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지금보다 예전의 삶이 더 좋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삶의 후회가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은 현재의 삶의 환경에서 개인적 견해를 답한 것이며, 남이 처한 상황과 상대적 비교를 통한 희망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희망을 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 등을 시도하거나,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나, 또 마음을 비우고, 종교적 믿음에서 그 외 희망을 느끼거나, 구하려고 하는 어떠한 능동적인 행동이나 태도 등은 보이지 않았다. 명확한 목표의 확립, 실행 가능한 경로의 상상과 목표를 향해 움직이도록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과 같은 자원들의 수반이 희망적인 생각[20]으로 이어진다고 볼 때, 이들은 희망을 구함에 있어 수동적이며, 또 자신의 내면적인것에서 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서 희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유형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희망은 삶



의 유의미성의 존재가 비어있다는 면에서 수동적 희망은 진정한 희망의 본질은 아니며, 절망의 위장된 형태와의 혼동으로 볼 수 있겠다.

제 2유형은 인터뷰에서 중년이 아직은 젊다는 생각과 살아가는 동안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과는 다른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인생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었다. 제 2유형은 희망을 구함에 있어 제 1유형에서처럼 수동적 지향성에서와 유사하다. 그러나 현재 그들의 경제적 수준, 건강문제, 종교적 믿음 등 현실적으로 1유형과 비슷한 상황에서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너무 혹독하게 자신을 다루거나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희망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현실적으로 중년의 삶 자체를 인지하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희망의 현실적 목표지향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노인의 희망에서처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희망을 경험하거나,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작은 것들 또는 미래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에서 희망을 경험하는 실용주의적 희망[12]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제 3유형은 희망에 관한 생각에 대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며,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며, 희망은 삶의 목적을 실현해 주는 도구라 생각한다. 이들은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는 단계적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해야하는 것에서 희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절망감을 느낄 때, 절망은 잠시의 상황일 뿐 절망만큼 희망이 줄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상대적 비교를 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사고와 희망을 구함에 있어 능동적이다. 유형 1이 희망에 대해 수동적 지향성이며, 외적인 실체에서 희망을 구하려는데 비해, 유형 3은 능동적이며, 희망을 자신의 본질에서 찾고자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인생전반에 대한 만족도나 중년의 현재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 또 희망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는 유형 2와는 같으나, 유형 2가 현실적 목표지향성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희망인 반면 유형 3은 희망의 생성주체를 자신에서 찾고자하는 내적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희망추구의 역동성에서

볼 때 매우 능동성을 보인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 5.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국 중년성인의 희망에 관한 주관성은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는 암환자 또는 질병이 있는 입원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닌 생애주기에서 중년기성인이었다. 한국 중년성인의 희망에 관한 주관성은 다른 생애주기에 있는 대상자와는 삶의 의미구조의 역동성, 목표지향성에서 차별화된 유형을 나타내었다. 중년기는 앞으로 삶의 위기가 따르는 즉, 여러 유형의 상실, 삶의 중대한 전환 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기의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희망을 이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현재 중증질환이 없는 중년기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암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중년기성인의 희망유형으로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따른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년기성인의 희망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간호중재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 ACKNOWLEDGMENTS

This article is supported by grants of Hyecheon College.

## REFERENCES

- [1] Co-translation by Hong gyeong Ja etc. Health Promotion Throughout the Life Span. Seoul: Hyemmun Publishing Co, pp. 690-710, 2008.
- [2] Lee Hyang Ryeon. Choe Ceol Ja. Park Oh Jang. Kim Young Sook. Choe Gyeong Ok. Kim Keum Soon. Heon Gyeong Seon. Yun Eun Ja. etc. Adult Nursing. Seoul: Soomoonsa Publishing Co, pp. 36-38, 2010.
- [3] Mi Hyong Kwon. Boon Han Kim. Yun Jeong Kim. about Satisfaction of Life in Middle-aged Single

- Women, Journal of KSSSS, Vo 18, pp. 101-123, 2009.
- [4] Choi Mi-Kyoung. Lee Young Hee. Depression, Poerlessness, Social Support, and Socioeconomic Status in Middle Aged Community Resi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e Nurs, 19(2), pp196-204, 2010.
- [5] Lee Jung-In. kim Kye-Ha. Oh Soon Hak.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Ma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5(3), pp. 422-431, 2003.
- [6] Kim Jung hee. Lee young Joo . A study of Andropaus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iddle-aged 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6(2), pp.186-195, 2005.
- [7] Lee Sam-Soon, Choi Won-Hee. A Study on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in Middle Aged Women -Based on Women Living in Geje City-.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e Nurs, 15(4), pp.353-361, 2006
- [8] Koo Bon Jin. The Influence of resilience, Hope, Marital Intimacy, and Family Support on Quality of Life for Middle-Aged women,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e Nurs, 17(4), pp. 421-430, 2008
- [9] Farran, C. J., Herth, K. A. & Popovich, J. M. HOPE AND HOPELESSNESS: critical clinical constructs. CA : Sage, pp. 5-9, 1995.
- [10] Herth, K. A., & Cutcliffe, J. R. The concept of hope in nursing 6. Br J Nurs, 11(21), pp. 1404-1411, 2002.
- [11] Dal Sook Kim , Hesook Suzie Kim, Donna Schwartz-Barcott & Donna Zucker. The nature of hope in hospitalized chronicallyill pati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43, pp. 547-556, 2006.
- [12] Kim Keum Sook. The Types of Hope among Korean Elderly : A Q-Methodological Appli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 Nam National University, 2009.
- [13] Kim DS, Kim KS, Park EM, Lee HJ. The types of hope in the hospitalized terminal cancer patients. Support Care in Cancer(2011) Vol. 19, June; supplement(2) : pp. S 206, 2011.
- [14] Dal sook Kim. Q-Methodological approach to concept development and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Korean journal of Nursing Query, 1(1), pp. 103-117, 1992.
- [15] Hung Kyu Kim. Understanding Q-methodology for the Study of Subjectivity, The seoul journal of Nursing, 6(1), pp.1-11, 1992.
- [16] Hung Kyu Kim. The Theory of Q-methodology and Application of Nursing Research,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Development, Hanyang University, Symposium, 1997.
- [17] Hung Kyu Kim. Q methodology : philosophu,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Communication Books, Korea, Seoul, pp. 1-21, 2008.
- [18] Kim Eun Joo. Kim Younghee.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in Korean Older Women Based on Successful Aging theory(SAT), Korean J Women Health Nurs, 17(4), pp. 378-387, 2011.
- [19] Song Mi Soon, Lee Eun Ok, Park Young Sook. Hah Yang Sook. Shim Young Sook. Yu Su Jeong. The concept Analysis of Hope : Among Cancer Patients Undergoing Chemotherapy, 30(5), pp. 1279-1291, 2001.
- [20] Snyder, C. R. The past possible future of hop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pp. 11-28, 2000.

**김 금 속(Kim, Keum, Sook)**



- 1984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1986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석사)
- 2009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혜천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 관심분야 : Q-방법론, 노인, 중년여성
- E-Mail : ksnuri@hu.ac.kr